

#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성스러운 맹약

# 시 축복받은 새해 2021년이어

리철준

엄동의 강추위 강산을 열구어도  
2021년 새해의 첫아침  
어머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인민의 가슴에 굽이치는 뜨거운것이여  
격정속에 받아안은 뜻깊은 친필서한이여  
사랑하는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 불러주신 그 정에  
끝내 오열을 터뜨리는 우리들이다  
모든 리상과 념원 꽃피워주실  
세상 제일 위대한 수령을 모신  
한없는 긍지로 부푸는 행복이다

인민의 생명 조국의 안양을 지켜  
그처럼 천만심혈 다하신 우리 아버지  
그이께 진정다해 고마움의 인사  
축원의 인사를 드려야 할 인민이건만  
오리려 새해의 축복  
은 나라 가정에 먼저 보내주시는 원수님

재난이 닥치면 그 재난 가셔주시려  
남먼저 인민을 찾아가시고  
기쁨의 명절이 오면 축원의 인사  
제일먼저 보내주시는 어머니  
아, 그의 마음엔 언제나

우리 인민만이 꼭 차있어라  
자자구구 깊은 정 어려웠고  
구절구절 사랑이 굽이치는  
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서한이여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의 새해는 행복으로 차넘치어라

혹독한 시련의 찬바람 불어도  
우리의 새해는 파스하여라  
인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그이가 계시어 2021년은  
은 한해 소중한 행복의 꽃 활짝 피어나리라

세월의 풍파에도 오직 변함없이  
원수님만 믿고 원수님만 받들어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  
이해도도 솟구치는 충정의 불길로  
그이께 기쁨만을 드리리라

아, 원수님의 축복으로 따뜻하고  
원수님께 충성다할 맹세로 뜨거운  
뜻깊은 새해여  
더 큰 승리 더 아름다운 행복을 안아올  
2021년 영광의 열두달이여!

기쁨과 행복의 노래, 환희의 축포와 더불어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보내주시 친필서한을 접하였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축원한다고,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피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

새해의 첫아침에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이 넘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의지가 강력히 어려웠는 위대한 어머니의 친필서한을 자자구구 새겨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고 이룰수 없는 걱정으로 마음은 몽물하여졌다.

그이의 친필서한에는 하늘처럼 신성히 떠받드는 인민의

희망에 넘쳐 새해를 내다보는 첫아침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전체 인민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에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피력 하신것이다.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헌신의 세계, 멸사복무의 강렬한 의지가 마음속에 뜨겁게 마쳐오는 친필서한이다.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피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하신 그의의 맹약에서 사람들모두는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을 다 기울이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멸사복무의 령을 눈물겹게 가슴에 안아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걸으시는 송고한 애민헌신의 길은 인민을 위해서는 한 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새해의 첫아침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오르는 공화국인민들

## 고마움과 그리움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새해 2021년이다.

새해의 첫아침을 맞으며 공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두 단어가 있다. 고마움과 그리움.

류례없이 엄혹했던 2020년의 날과 달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뜨거운 고마움속에, 그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속에 행복의 눈물과 웃음으로 보낸 공화국인민들이다.

언제나 인민을 심장속에 간직하시고 사랑과 은정만을 베푸시는 고마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그리워 땀과 눈물과 신음, 방송에 눈과 귀를 모으고 격정에 눈물짓는 우리 인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눈빛과 미소, 인자하신 영상은 너무도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력사를 펼치는 고마움의 샘줄기이다.

공화국인민은 지난 한해에 눈물속에 살았다. 지구를 휩쓴 무서운 병마에 대한 두려움이나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보금자리 잃은 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해의 첫아침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라는 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인민의 건강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불빛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적대세력의 암살책동과 악성전염병의 위협에 편승이라도 하듯 지난해 자연은 왜 그다지도 모질었던가.

태풍과 큰물, 산사태... 아직은 위협이 가지지 않은 황해북도의 농촌길을 제일먼저 찾으시는 원수님의 첫은 신발과 바지자락을 보며, 동해의 피해현장을 찾으시고 친필서한을 한자 한자 쓰시는 모습을 보오면서 공화국인민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인민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도 당장 75돌경축 열병식에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시어, 모두가 건강해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령도자의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을 들으며 또다시 걱정 눈물을 흘린 이 나라 인민들이다.

그 눈물은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의 결정체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사회주의보금자리를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고마움, 비오면 또 비고싶고 그 품 떠나 못사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공화국인민의 정신적기둥이 되고 창조와 기적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불철주야의 혁명령도로 주체109(2020)년을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온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에 대하여 격찬하면서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메히코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사상을 그대로 계승해나간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예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장은 김정은각하를 모신 사회주의조선은 국력강화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조선민족과 진보적 인류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하는 보다 강력한 자위의 성세로 전변되었다. 조선인민은 찬란한 패일에 대한 확신과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도전을 뚫고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하면서 조선통일촉진 네팔위원회 위원장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김정은각하의 일명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위엄은 확정적이라고 찬양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

본시기자 김정은

## 축복받은 인민의 응지

《땀-땀-땀-》  
울음은 제아의 종소리와 더불어 새해 2021년이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 희망과 포부까지 집의 창가마다에, 거리와 마을들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되어 비껴흐른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받아안고 좋아라 땀박질하는 복받은 행복동지들, 이 새로운 명절봉사로 흥성은 각지의 봉사망들에서 평양맹맹, 고기쟁반국수, 떡국을 비롯한 민족음식들과 갖가지 로리들을 맛있게 들며 즐겁게 양력설을 보낸 근로자들.

새해의 기쁨과 환희는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다정한 이웃들, 친척, 친우들 사이에 서로서로 오가는 친근한 인사말에도 한껏 어려온다. 조국의 최북단과 동서해기슭의 농어촌, 검덕지구의 광산마을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피해지역에 솟아난 사회주의선경마을들마다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강산에 울려 퍼진다.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 하지만 왜서인지 이 모든 것이 레사롭게 안겨오지 않는다. 기쁨속에, 즐거움속에

숙에 맞고보낸 설날이지만 2021년의 양력설은 남다른 사연을 안고 만사람의 심금을 새치게 흔든다.

결코 누구에게나 차대진 새해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세계를 무섭게 휩쓰는 악성비루스의 피해로 설맛이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잃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곡성이 들려오는 각지의 봉사망들에서 평양맹맹과 악물같은 자연재해로 집과 가산을 잃고 엄동의 한지까지 로리들을 맛있게 들며 즐겁게 양력설을 보낸 근로자들.

하지만 이 땅은 회멸과 랑만, 넘쳐나는 희망과 포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으니 이것이 어찌 세월이 가져다준 덕택이겠는가.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은 자연의 리치이지만 공화국인민들이 느끼는 새해의 기쁨은 따뜻한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꽃피는 사랑의 결정체이다.

누구나 목격하고 누구나 체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

진 믿음은 생의 전부로 받아안고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며 2020년의 새해의 첫 현저도로로정으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순천리비료공장건설현장에 령도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평양종합병원착공식장에 나오시어서는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우자고 하시며 몸소 건설의 첫발을 쓰시고 직접 발파판까지 누르신 불멸의 화복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졌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자연의 대세양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사색의 낮과 밤, 새겨가신 헌신의 자욱자욱은 또 그 얼마이던가.

은과군 대청리로부터 금천군 강북리, 김화군피해복구현장과 검덕지구...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된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으시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피해지역으로의 현지도도길과 더불어 인민의 무등도, 행복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으니 하늘도 감복할 열화와 같은 그의 사랑에 온 나라 인민이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피해지역뿐이 아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우야 한다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송고한 뜻에 떠받들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과 문화정서생활지들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의 창조물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이 땅에 차고 넘쳤다.

하기에 인민들 누구나 삼가 웃음을 여미고 심장으로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이고 그의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과 의지를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번영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활화산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본시기자 김영범